

#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인식과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of Adolescents and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Stereotype

심미영, 이돌녀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Mi-Young Sim(sim312@hanmail.net), Dool-Nyeo Lee(doolnyeo@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인식과 고정관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인식을 매개로 고정관념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검증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경남지역 중학교 6개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332부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인식에 개방성에 긍정적 영향을, 타문화거부와 타문화에 대한 편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타문화에 대한 편견, 타문화에 대한 거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경험이 고정관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다문화인식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적 제언을 제공하였다.

■ **중심어** : | 다문화경험 | 다문화인식 | 고정관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social integration by analyzing the effect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on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stereotyp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perception. The research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 : First, multicultural perception is differently influenced according to multicultural experiences. That is, multicultural experiences have found to have the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negative effect on rejection about other cultures or prejudice about other cultures. Second, the result which analyzed the effect of multicultural perception on stereotype has found that acceptance about other cultures doesn't have any effect on stereotype. However, it can be found that the prejudice and rejection about other cultures are verified to be the variables which have the positive effect on stereotype. Third, the result which analyzed the direct effect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on stereotype and the indirect effect through multicultural perception has found that multicultural experiences don't have any direct effect on stereotype, but do have the indirect effect through multicultural perception.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technology.

■ **keyword** : | Multicultural Experiences | Multicultural Perception | Stereotype |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국국제대학교의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05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6월 03일

수정일자 : 2015년 06월 03일

교신저자 : 이돌녀, e-mail : doolnyeo@hanmail.net

## I. 서론

한국사회는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확대로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 국제 결혼가정의 증가,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였다는 진단과 더불어 다문화 교육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단지 인구 구성의 다양화 차원을 넘어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의 다양한 변화는 학교교육의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와 환경 가운데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시대가 되었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옷을 입어본다거나 다양한 음식을 먹어 보는 등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이주민들로부터 직접 듣는 수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수준이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이주민에 대한 반편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이주민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다문화경험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에 어떤 효과를 미쳤을까? 등에 대한 물음이다.

Banks[32]는 다문화인식이 사회의 자산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공존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각, 다인종·다민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이 다문화 수용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2][10][14][18][20]와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비형식적 경험과 더불어 성별, 연령, 성적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회인구학적 배경 또한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9]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정서적 태도를 기반으로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타문화 사람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타문화의 문화적인 환경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1].

이처럼 선행연구가 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또한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인식이 청소년의 고정관념의 변화에 매개효과로 실증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검증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로써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들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긍정적인 사회 경험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개인을 교육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입을 위해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 청소년의 다문화인식은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인식을 매개로 고정관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국제결혼가정, 이종문화가정, 혼혈인가족 등을 의미하여 왔다[12].

그 동안 국제결혼은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결합된 가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이

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보다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15].

다문화가정의 증가원인으로 농촌지역의 저발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농촌지역의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성비의 불균형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많은 여성은 과거 관습적 결혼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선호하게 되었고,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경향에 비해 남성은 결혼 적령기를 넘기게 되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25].

2004년 건강가정시민연대가 처음으로 가정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하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 본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한 가정,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을 포함시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민족,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다문화경험

다문화경험은 다양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토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경험으로 가족, 친구, 사회, 일하는 장소, 학교, 미디어, 여성 등이 있다. 개인의 문화 및 인종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얼마나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었느냐,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얼마나 유익한 경험을 하였느냐에 달려 있다[31]. 또한 테니즌 지역의 경우 원거주민과 테니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경험이 많이 없었고, 오히려 미디어, 외국어, 여행요인과 같은 간접적이고 긍정적인 접촉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문화간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7].

## 3. 다문화고정관념

다문화 경험이 부족하고 오랜 기간 ‘단일민족’으로 살

아온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게 된다.

고정관념(Stereotype)은 편견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올포트[30]는 특정 집단의 모든 성원들은 어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되게 일반화시켜 믿는 신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현실적 갈등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집단이 일관된 결과인데 문화적 인종적 소수집단이 한국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제한된 자원을 빼앗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8].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26]에서는 고정관념을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칭한다. 고정관념은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나 접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거나 다문화 경험을 통해 고정관념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과 다문화 인식의 변화에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 4. 다문화인식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다양성 인식과 다문화 수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한 지역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집단의 유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겪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순수 혈통주의 의식이 강하고 어려서부터 단일민족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학습되어진 민족이라는 점이다. 이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다민족과 다문화에 대한 비하와 배척의 시선을 갖게 하는 등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7].

Banks[32]는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에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간문화적 역량(cross-cultural competence)라고 하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도의 상호연관된 운명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다문화적 소양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다문화인식의 하위요인을 개방성, 존중성, 수

용성으로 구분하고,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하였다. 개방성은 다른 나라 사람이나 문화를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수용성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것, 존중성은 다른 문화권 사람의 행동방식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격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7].

따라서 다문화인식이 높다는 것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이며,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5].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짐으로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개방성을 함양하는 태도는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 5. 선행연구 고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태도 및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불완전한’ 다문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종·민족, 출신국의 경제력과 같은 신분 위계구조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청소년의 성별, 학업성취도에 따라 문화적 경험 및 다문화인식에 차이가 있고, 문화적 경험들이 아동의 다문화인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다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다문화경험과 문화간 감수성의 관계에서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경험이 문화 감수성에게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고, 친구 및 여행을 통한 다문화경험도 문화 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문화감수성은 다문화 교육 이전에는 타문화와 문화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문화만을 우월한 경향으로 여겼으나,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22].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본 결과 단일민족의식, 고정관념, 사회적 거리감의 일반 경향성은 단일민족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11]. 외국인에 대

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성별과 연령, 주관적 계층변수, 자신의 성적에 대한 평가 등이 있었고, 여학생 집단과 고등학생집단이 사회적 거리감과 외국인집단별 차별성이 가장 적은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4][21].

중·고등학생의 다문화 역량 강화에 선행조건이 국민 정체성의 조건, 특히 귀속적 조건, 권력주의, 자기주도 가치지향, 문화적 통합, 지식습득, 기회 균등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되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다문화경험을 통해 다문화인식과 고정관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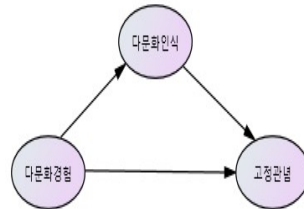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남 진주지역과 인근에 소재하는 6개의 여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인 여중학생이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절차는 표집대상의 담임선생님께 설문 목적과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의 유인물을 보냈고 설문지를 인편으로 직접 각 학교에 전달하였으며 수거하였다. 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최종 332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자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특성

변인	항목	N	%	변인	항목	N	%	
학년	1학년	46	13.8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20	6.2	
	2학년	187	56.2		100만원~ 150만원미만	37	11.5	
	3학년	100	30.0		150만원~ 200만원미만	68	21.1	
성적	상위권(상 위30%)	90	27.2		200만원~ 300만원미만	65	20.1	
	중위권	160	48.9		300만원~ 400만원이상	51	15.8	
	하위권(하 위30%)	79	23.9		400만원~ 500만원이상	41	12.7	
					500만원이상	41	12.7	
※ Total N=332								

분석결과, 1학년이 13.8%(46명), 2학년이 56.2%(187명), 3학년이 30.0%(100명)이며, 성적별로는 상위권 27.2%(90명), 중위권이 48.9%(160명), 하위권이 23.9%(79명)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6.2%(20명), 100~150만원 미만이 11.5%(37명), 150~200만원 미만이 21.1%(68명), 200~300만원 미만이 20.1%(65명), 300~400만원 미만이 15.8%(51명), 400~500만원 미만이 12.7%(41명), 500만원 이상이 12.7%(41명)으로 나타났다.

### 3.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 3.1 다문화경험

다문화경험이란 외국의 다양한 사람과 만나거나 그 문화의 여러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다문화경험에 대한 문항은 [16][22]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문화교육경험, 다문화매체경험, 다문화청소년과의 직접경험, 주변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험, 지역사회를 통한 다문화경험에 관한 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 3.2 다문화인식

다문화인식이란 현재 학습자들이 살아가면서 접하는 집단들의 내부 및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종교 등의 광범위한 편차를 수용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인식에 관한 문항은 청소년들의 다문화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된 [29][33][34]의 검사도구를 기초로 [19]에 의해 개발한 18문항을 연

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다문화인식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 3.3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란 특정대상이나 집단구성원의 속성에 대해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3][23]등의 연구를 토대로 다문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배적이다’, ‘천박하다’, ‘믿을 수 없다’, ‘복종적이다’, ‘무식하다’의 부정적 형용사 5개와 ‘순수하다’, ‘정이 많다’, ‘예의바르다’, ‘따뜻하다’, ‘생활력이 강하다’의 긍정적 형용사 5개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항목들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분석과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요인적재치가 .40미만인 항목과 요인의 신뢰도가 .70미만으로 떨어지는 요인을 제외하였다.

다문화경험에 관한 5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다문화인식은 초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4개의 요인 다문화개방성, 타문화 거부, 타문화편견, 자문화 우월감의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나 자문화 우월감은 신뢰도가 .60이하로 나타나 분석에서 삭제하였다.

고정관념의 경우 긍정적 고정관념과 부정적 고정관념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으나 신뢰도가 낮은 긍정적 고정관념에 관한 문항은 삭제 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적합도는 KMO값이 0.5이상이고 Bartlett의 유의 확률이 0.05미만이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MO값이 0.90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Bartlett의 유의확률이  $p < .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요인적재치가 .60을 넘고, 각 구성개념들의 신뢰도계수가 .70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어,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다항목으로 측정 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LI=.917, CFI=.927, RMSEA=.055(Lo=.049, Hi=.062), SRMR=.053으로 나타나, Hu, Bentler(1999)가 제시한 적합도(GFI, TLI, CFI : .90이상 좋은 적합도, RMSEA : .05이하 좋은 적합도, .05~.1 사이 적합, SRMR은 RMR을 표준화시킨 지표로 모형의 절대적합 지수로 .08보다 작으면 적합한 모형)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와 더불어 모든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에 대해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의 값이 .50이상인 경우 개념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다문화경험의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나 부분 개념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타당도는 평균분산 추출 지수(.50 이상)와 개념 신뢰도(.70)이상)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표 3]에서 보듯이 모든 요인간 상관관계제곱의 크기는 .066~.43으로 나타났다. 요인 중 가장 작은 분산추출지수(AVE) 값을 갖는 타문화편견보다 작은 것이다. 따라서 모든 요인은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변인명	Item Code	요인 적재치	eigen-value (Variance)	Cronbach's α	표준 적재치	측정 오차	AVE	개념 신뢰도
다문화 고정관념	e1	.641	2.403 (9.611)	.701	.446	.209	0.502	0.832
	e2	.589			.591	.404		
	e3	.658			.658	.392		
	e4	.656			.516	.471		
	e5	.621			.558	.529		

구분	다문화 경험	다문화 인식			고정 관념			
		다문화 개방성	타문화 거부	타문화 편견				
다문화 개방성	c1	.853	4.459 (17.835)	.916	.841	.210	0.657	0.930
	c2	.836			.826	.225		
	c3	.788			.745	.300		
	c4	.774			.720	.354		
	c5	.718			.749	.276		
	c6	.710			.728	.371		
	c7	.629			.688	.369		
다문화 인식	c8	.741	3.174 (12.698)	.843	.765	.275	0.623	0.891
	c9	.695			.738	.273		
	c10	.735			.756	.271		
	c11	.680			.755	.300		
	c12	.660			.597	.470		
다문화 편견	c13	.784	1.939 (7.758)	.712	.581	.635	0.501	0.750
	c14	.696			.672	.406		
	c15	.710			.717	.386		
고정관념	c1	.586	3.338 (13.350)	.873	.675	.291	0.703	0.922
	c2	.737			.821	.183		
	c3	.748			.716	.325		
	c4	.800			.786	.242		
	c5	.798			.815	.197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90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3891.010 df=300 p=.000					CMIN=535.407, DF=265, p=.000, CMIN/DF=2.020, TLI=.917, CFI=.927, SRMR=.0532, RMSEA=.055(Lo=.049, Hi=.062)			

표 3. 연구단위들간 상관행렬

구분	다문화 경험	다문화 인식			고정 관념
		다문화 개방성	타문화 거부	타문화 편견	
다문화 경험	.502	.550	-.439	-.257	-.448
다문화 개방성	.302	.657	-.430	-.256	-.401
타문화 거부	.193	.185	.623	.604	.657
타문화 편견	.066	.066	.364	.501	.584
고정관념	.201	.161	.431	.341	.703

\*대각선은 평균분산추출지수(AVE)임. 대각선 위쪽은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대각선 아래쪽은 구성개념 간 상관자승치(Squared correlation)임.

## 2.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인식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직접효과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및 다문화인식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구조회귀모형은 [그림 2],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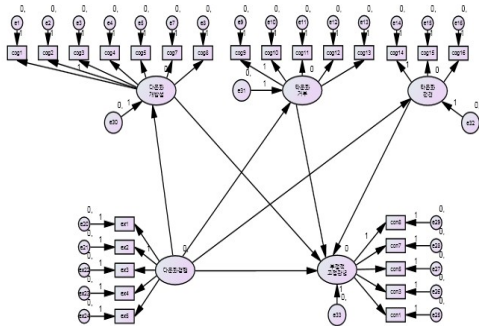


그림 2. 구조회귀 모형

구조회귀모형의 분석결과, TLI=.900 CFI=.909로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061(Lo=.055, Hi=.068)로 .10이하로 나타났고, SRMR=.0748로 .08이하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검증을 통해 채택된 연구모형에 따라 주요변인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경험 및 다문화인식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직접효과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비표준화 Estimate	표준화 Estimate	S.E.	C.R.	P
다문화경험→타문화거부	-.768	-.549	.117	-6.560	***
다문화경험→타문화편견	-.497	-.390	.112	-4.449	***
다문화경험→다문화개방성	.948	.602	.131	7.225	***
다문화경험→부정적고정관념	-.145	-.109	.130	-1.117	.264
타문화편견→부정적고정관념	.326	.311	.072	4.554	***
타문화거부→부정적고정관념	.485	.508	.068	7.161	***
다문화개방성→부정적고정관념	-.054	-.064	.056	-.956	.339

CMIN=603.315, DF=268, p=.000, CMIN/DF=2.251, TLI=.900, CFI=.909, SRMR=.0748, RMSEA=.061(Lo=.055, Hi=.068)

다문화경험은 다문화개방성에 직접적인 정적영향(C.R.=7.225, p<.001)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경험이 높을수록 다문화개방성은 높아진다. 다문화경험은 타문화에 대한 거부(C.R.=6.560, p<.001)와 타문화에 대한 편견(C.R.=4.449, p<.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경험이 적을수록 타문화에 대한 거부와 편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인식 요인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개방성은 고정관념에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타문화거부(C.R.=7.161, p<.001)와 타문화에 대한 편견(C.R.=4.554, p<.001)은 고정관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타문화에 대한 거부와 편견이 높을수록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경험은 고정관념에 직접적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

## 3. 다문화인식의 간접효과 검증

다문화경험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간접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다문화경험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경험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문화인식의 매개효과는 -.438(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그림 2]를 통해서 볼 때, 다문화인식요인 중 긍정적 인식요인인 다문화개방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부정적 인식요인인 타문화에 대한 거부와 편견을 매개로 다문화경험이 고정관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다문화인식의 개방성이라는 긍정적 요인보다는 타문화에 대한 거부와 편견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간접적으로 더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을 통해 부정적 인식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변인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표준화 Estimate	표준화 Estimate	표준화 Estimate	P
다문화경험→타문화거부	-.549	-.549	.000	
다문화경험→타문화편견	-.390	-.390	.000	
다문화경험→다문화개방성	.602	.602	.000	
다문화경험→고정관념	-.547	-.109	-.438	.004
타문화편견→고정관념	.311	.311	.000	
타문화거부→고정관념	.508	.508	.000	
다문화개방성→고정관념	-.064	-.064	.000	

## V.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경남지역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인식과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과 다문화인식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인식에 개방성에 긍정적 영향을, 타문화거부와 타문화에 대한 편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타문화에 대한 편견, 타문화에 대한 거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경험이 고정관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다문화인식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문화인식은 다문화 개방성, 타문화에 대한 거부, 타문화에 대한 편견의 3가지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다문화경험에 따라 다문화인식은 다르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경험은 다문화개방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문화거부나 타문화

에 대한 편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경험이 타문화에 대한 거부나 편견과 같은 부정적 인식보다는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같은 긍정적 인식에 더 유용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다문화 경험에 따른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며 차이를 나타낸 연구 [2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다문화인식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인식 요인 중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타문화에 대한 거부는 고정관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되어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거부의 다문화인식이 높을수록 부정적 고정관념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의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타문화에 대한 거부나 편견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긍정적 고정관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경험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다문화인식을 통한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경험은 고정관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다문화인식을 통해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인식 요인 중 타문화에 대한 거부와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통하여 고정관념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경험이 낮을수록 타문화에 대한 거부와 편견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교사의 다문화적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다정 청소년에 대한 일반청소년의 고정관념 수준이 낮다[13]는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교육, 매체, 다문화에 대한 직접경험 등 다문화경험을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 시킴으로써 긍정적 고정관념으로 전환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 2.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



인식요인 중 개방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타문화거부 및 타문화에 대한 편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다문화경험은 고정관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다문화인식 요인 중 부정적 인식요인인 타문화에 대한 거부, 편견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문화경험 즉, 다문화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전반적인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언론을 통한 다양한 다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던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래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교류와 직·간접적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고정관념을 변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직접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만나거나 외국 문화를 접하는 경험을 가질 기회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그 대안으로 다문화 교육을 통한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안된다.

다른 문화를 습득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여러 차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문화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교육에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에게 각 연령별·발달수준별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인지적 수준의 교과서적 태도를 넘어서 공동체적 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보다 수준 높은 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부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김옥순, “해외체류경험과 외국어사용능력에 따른 문화간 감수성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 제5권, 제1호, pp.45-67, 2008.
- [2] 김준영, 이윤정, “실과 의생활 영역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 제25권, 제1호, pp.269-287, 2012.
- [3] 김혜숙, “집단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제13권, pp.1-33, 1999.
- [4] 김희자,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 제9권, 제1호, pp.255-282, 2008.
- [5] 박순희, 김선애,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 경험과 다문화인식:개방성-수용성-존중성과의 관계 - G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7호, pp.27-50, 2012.
- [6] 박근수, 신희정, “중·고등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307-319, 2012.
- [7] 백수은, “거주지역별 비형식적 다문화경험 정도와 문화간 감수성”, 글로벌교육연구학회, 제3권, 제1호, pp.21-41, 2011.
- [8] 양계민,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 제2호, pp.59-79, 2009.
- [9] 양정남, 최은정, 문란영, 박건영, 박순희, “자기효능감, 사회복지용태도도가 사회복지전공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학회, 제16권, pp.24-47, 2011.
- [10] 우민정, 이은영, “다문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인성 다문화 태도,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제17권, 제4호, pp.185-208, 2013.
- [11] 유난영,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

- 감 연구-김포시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제21권, pp.174-203, 2009.
- [12] 유진이, 홍영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제5권,3호, pp.89-100, 2007.
- [13] 이경아, 제3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민족정체성이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재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4] 이규림, 김영옥, “유아교사의 다문화감수성 교사 효능감 및 유아 다문화인식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pp.299-318, 2012.
- [15] 이성연, 최유,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16] 이진옥, 다문화가정청소년에 대한 일반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정관념, 편견, 사회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7] 이채호, 유효순, “유아교사용 다문화인식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제30권, 제5호, pp.311-325, 2010.
- [18] 장은화, 어주경, “아동의 자아개념 및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89-305, 2013.
- [19] 장인실, 김명희, “Bennett 모형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제50권, pp.123-148, 2011.
- [20] 정명희, 이주희,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지, pp.427-440, 2014.
- [21] 정석원, 정진철,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경험과 사회적 친밀감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제5권, 제1호, pp.51-68, 2012.
- [22] 조현희, 문화 간 감수성 발달을 위한 사회과 다문화교육과정의 설계 및 적용 : Bennett의 다문화 교육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3] 지은주, 아동의 다문화 경험과 문화간 감수성 및 부모 고정관념이 아동의 다문화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4] 하경애,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25] 한국염,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 [26] 한국청소년상담원, 다문화가정 청소년 연구, 2006.
- [27] 한수진, 정진경, “초등학생의 다문화경험과 문화간 감수성의 관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제16권, 제1회, pp.173-194, 2012.
- [28] 황미애,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들의 차별적 태도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1권, 제3호, pp.205-226, 2009.
- [29] A. Munroe and C. Pearson, “Th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A new instrument for multicultural studies,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66, No.5, pp.819-834, 2006.
- [30] G.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 Wesley Education Publishers Inc, 1954.
- [31] I. S. Chang,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eacher's Ethnic Identifications and Attitudes Toward Language Diversity: A Recursive Path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2002.
- [32] J. A. Banks,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2008.
- [33] P. Ambrosio, *Assessment of Multicultural Diversity outcomes grant a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the teachers college and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1998.
- [34] W. Firtz, A. Mollenberg, and G. M. Chen,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Hong Kong), 2001.

저 자 소 개

심 미 영(Mi-Young Sim)

정회원



- 1999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가정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가족복지, 사회과학컨텐츠 개발

이 돌 녀(Dool-Nyeo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서비스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가족복지, 사회과학컨텐츠개발